

어린이 책꽂이

▲태담동화= '아기랑 나누는 아름다운 세상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임신중임마가 배속 아기에 소리내어 읽어드리는 동화책이다. 생명과 우주, 자연과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 등을 담은 이야기 22편이 실려 있다.

▲역사를 일깨운 10가지 전쟁이야기 = 우리 나라 역사를 생생한 이야기로 꾸며 쉽고 재미있게 들려준다.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전쟁이야기를 통해 역사를 바로 알고 평화의 소중함까지 느낄 수 있다.

▲무자비한 윌러비 가족 = 세계 명작에 흔히 나오는 인물과 사건들에 독특한 윌러비 가족을 등장시켜 색다른 재미를 느끼게 하는 어린이 소설. '빨간머리 앤', '제인 에어', '크리스마스 캐럴', '허클베리핀의 모험' 등 13편이 수록돼 있다.

▲임진록 = 우리나라 대표적인 군담소설 '임진록'을 어린이·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엮었다. 우리 민족이 겪은 참담한 역사와 전쟁의 의미, 다양한 영웅의 참된 면모 등을 이해할 수 있다.

▲천기누설 역사상, 훈민정음을 지켜라 = 타임머신을 타고 한국의 생생한 현상을 떠나는 어린이 역사 탐험소설 시리즈, 주인공 김사랑, 광사마의 이름을 한 글자씩만 역사상은 타임머신을 이용해 역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다.

▲천기누설 역사상, 훈민정음을 지켜라 = 타임머신을 이용해 역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다.

▲천기누설 역사상, 훈민정음을 지켜라 = 타임머신을 이용해 역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다.

▲천기누설 역사상, 훈민정음을 지켜라 = 타임머신을 이용해 역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다.

▲천기누설 역사상, 훈민정음을 지켜라 = 타임머신을 이용해 역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다.

▲천기누설 역사상, 훈민정음을 지켜라 = 타임머신을 이용해 역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다.

▲천기누설 역사상, 훈민정음을 지켜라 = 타임머신을 이용해 역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다.

▲천기누설 역사상, 훈민정음을 지켜라 = 타임머신을 이용해 역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다.

▲천기누설 역사상, 훈민정음을 지켜라 = 타임머신을 이용해 역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다.

원효가 신라의 서태지였다고?

서라벌 사람들 심윤경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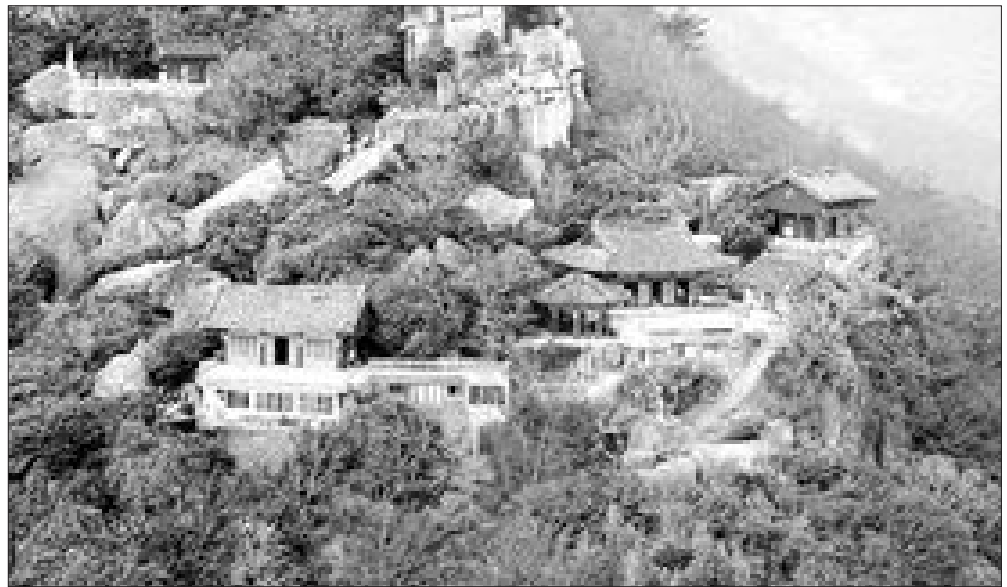
“신라 지증왕의 아내 연제 부인이 풍을 싸던 그 돌레가 어른의 발걸음으로 여덟 걸음이었다. 또 너럭바위에 빨래를 놓고 통나무를 휘둘러 웃을 빨았다.”

신라 선덕여왕은 당시의 다이애나비, 원효는 화려한 헤드스핀으로 흥법회에 모인 대중을 사로잡은 서태지였다. 유명 신라인들에게 발휘한 상상력을 덧입힌 소설이 나왔다.

작가 심윤경씨가 신라시대를 배경으로 신화적 상상력을 풀어낸 연작소설 '서라벌 사람들'(실천문학사)을 내놨다. 6, 7세기 신라 역사를 모티브로 했는데 읽으면 무릎을 칠 정도로 포복절도할

상상력이 돋보인다. 먼저 신라가 불교를 공인했던 법흥왕(?~540) 시절, 신라 토착 신앙을 성(性) 숭배로 해석했다. 여기에 통일신라시대 불교 대중화에 혁혁한 공적을 세운 이차돈(506~527)과 원효(617~686)의 이야기를 곁들였다. 또 무열왕을 전한점으로 성골에서 진골로 왕권이 옮겨지는 정치적 변동을 담고 있다.

신라의 토착 신앙과 불교의 유입 과정에서 겪



책에서 원효는 화려한 헤드스핀으로 흥법회에 모인 대중을 사로잡은 서태지로 그려진다. 시인은 신라 선덕여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여수 향일암 모습.

흘리는 눈물엔 저마다 사연들이 있다

눈물상자 한강 지음

슬플때도 기쁠때도 화가 나든 눈물은 나기 마련.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에는 이유가 어쨌든 저마다 사연이 담겨 있다.

소설가 한강씨가 어른들을 위한 동화 '눈물상자'를 펴냈다. 책에는 늘 눈물을 달고 사는 '눈물단지' 아이와 '순수한 눈물'을 찾아다니는 눈물 수집가 아저씨, 그리고 오랫동안 눈물을 잃어버린 할아버지가 등장한다.

책은 이들을 통해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눈물이 존재하는지, 어떤 이유에서 흘리든 순수한 눈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등 눈물에 담긴 여러가지 의미를 보여준다. 책에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을 비롯해 우는 법을 잃어 버린 어른들까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작가는 10여년 전 본 '눈물을 보여드릴까요?'라는 제목의 덴마크 어린이극에서 강한 인상을 받아 설정을 빌려왔다고 말했다.



〈문학동네·7천5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부 기자가 쓴 '클래식 이야기'

굿바이 클래식 조우석 지음

최근 부쩍 자주 출간되는 책이 '클래식 음악'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들 책은 대부분 클래식에 얽힌 뒷이야기나, 들을 만한 아름다운 음악을 소개하고 있다.

30여년간 문화통 기자로 활동해온 조우석씨가 펴낸 '굿바이 클래식'은 '인문학으로 읽는 클래식 음악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조금 색다른 클래식 서적이다.

베토벤, 모차르트를 넘어 현대음악을 논하면서 저자는 인류학, 사회학, 경제학, 불교, 미술 등 다양한 장르를 동원, 클래식의 고정 관념을 깨뜨린다.

한때 '피아노 음악 오타쿠'였고, '미스터 클래식'이었던 저자는 클래식과 관련한 만만찮은 내공을 통해 우리 시대 음악을 듣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시대 음악과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동아시아·1만2천5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 읽기

C.S루이스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에는 늘 따라붙는 화려한 수식어들이 있다. 29개 언어로 번역된, 9천만 부 이상 판매된, '반지의 제왕' '어스시의 마법사'와 함께 세계 3대 판타지로 꼽히는, 블록버스터 영화로 제작되는, 카네기 상을 수상한 작품 등이다.

'나니아 연대기'는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연대기적으로 관련이 있는 일곱 편의 이야기를 통칭한다. 1950년에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 출판되었고 매년 '캐스피안 왕자' '새벽 출정호의 항해' '은의자' '말과 소년' '마법사의 조카'가 나왔으며, 1956년 '마지막 전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나니아 연대기'의 각 작품들이 속속 영화화되고 있다. 2005년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 시작으로 최근에는 '캐스피안 왕자'가 개봉되었다.

하지만 영화에서 받는 느낌과 원작에서 받는 느낌은 상당히 다르다. 반지의 제왕 3부작에서도 그랬듯 영화가 원작의 일부만을 보여줬거나 영화판에 맞게 자의로 수정한 부분이 많아 원작을 다시 읽어도 새롭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뜻이다.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 C.S 루이스는 기독교 신학자였다. 개방

적인 과학적인 분석을 앞세운 그의 신학이론은 정통신학과 비교해 논란의 여지가 많다.

기독교 사상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나니아 연대기'는 종교의 벽에 갇히지 않고 오히려 종교의 한계를 뛰어넘어 문학적 성취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독자로부터 사랑을 받는 작품이 됐다.

십년 전 즈음에 배낭여행을 하고 있을 때였다. 호수에서 한 달 가량 신세를 진 선배가 헤어지기 전 책을 한 권 내밀었다. 낡고 오래된 페이퍼백인 '마법사의 조카'였다. 선배는 동화를 공부하는 나에게 C.S루이스의 작품들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뒤 그가 죽은 해인 1963에 나온 그 책에 대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며 책을 건넸다.

까맣게 잊고 지냈던 그 책을 읽게 된 것은 C.S루이스가 쓴 다른 책, '스쿠테이프의 편지'를 읽고 난 뒤였다. '스쿠테이프의 편지'를 통해 본 C.S루이스는 사람의 본성에 대해 이해가 깊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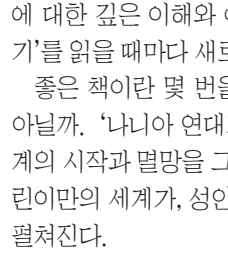
딱딱한 학자로만 여겼던 그가 정통적인 동화문법으로 창조한 '나니아 연대기'를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알고 나서부터였다. 이후 '나니아 연대기'를 읽을 때마다 새로운 재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좋은 책이란 몇 번을 읽어도 다 읽고 싶은 책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나니아 연대기'는 나니아라는 나라와 그 나라가 속한 세계의 시작과 멸망을 그린 판타지 동화로, 어린이들이 읽을 때는 어린이만의 세계가, 성인이 읽을 때는 성인 눈높이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진다.

나니아가 창조될 때의 흥분이 그 세계가 멸망으로 인해 슬픔으로, 그리고 그리움으로 변할 때까지 손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흡입력이 대단한 작품이다.

3대가 함께 읽을 수 있는 작품으로 평생 가까이 두고 싶을 때 읽을 때마다 완벽한 신세계를 불러 줄 수 있는 책이 바로 '나니아 연대기'이다.

김남승(아동문학가)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상일부동산' (Daedong Sangil Real Estate) featuring '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Model Bathrooms and Various Commercial Build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고흥신도시공인중개사' (Gohung New City Licensed Real Estate Agent) with contact info (061)833-6689.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첨단월세공인중개사' (Advanced Monthly Rental Licensed Real Estate Agent) with contact info (062)972-4385.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법원경매 전문' (Court Auction Specialist) by '지지경매컨설팅(주)' (Jiji Auction Consulting Co., Ltd.).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법원경매 전문회사' (Court Auction Specialist Company) by '법원경매 전문회사' (Court Auction Specialist Company).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국민공인중개사' (National Licensed Real Estate Agent) with contact info 011-635-7939.